Brian Impact

2024 임팩트그라운드

미래비전 계획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2024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미래비전계획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지리산이음" 미래비전 계획서

■ 제1장 조직소개

● 조직개요

대표자 및 이사회 명단			
□ 조양호 (이사장, 대표자) □ 임현택 (이사,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장) □ 정란아 (이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유지선 (이사, 남원작은변화포럼 대표) □ 최세현 (이사, 지리산초록걸음 대표) □ 최석민 (이사, 지리산문화공간 대표) □ 이해정 (이사, 파프리카인터내셔널 대표) □ 이호 (감사, 전)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			
설립년월일	단체설립일 : 2013.12.31 법인등록일 : 2016.6.30	**상근직원 수**	4명 (정직원 4명)
소재지	법인 주소지 :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127 커뮤니티 공간 주소지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천왕봉로 725		
법인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임의단체 □ 공공기관 □ 사회복지법인 ■ 기타(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jirisaneum.org	**모 법인명**	-
공익법인	Y	**주무관청**	행정안전부
조직의 설립목적			
지리산권(남원, 함양, 산청, 하동, 구례)에서 사람, 지역, 세계를 연결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창립한 <지리산이음>은 마을에서 배움, 소통,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지리산권 사람들의 호혜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이웃이 이웃을 돕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지리산에서의 새로운 실험과 대안적 가치가 사회 곳곳의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합니다.			

BrianImpactGround

● **조직의 재무제표 및 수익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설립 후, 누적기부금 총액 (~2023) : 총 2,922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49	404	607	561	511	707

- 최근 3년간 수익비용 내역

	2021년(연말)	2022년(연말)	2023년(연말)
수익 총계	581	519	793
재단 지원금 총액	0		100
비용 총계	516	468	605

● **주요 사업(3개 이내)**

사업명	사업 내용 (한 문장으로 기술)
마을책방카페 토닥	마을 주민들의 배움, 소통, 나눔의 공간이자 지리산을 찾는 여행객들과 마을을 이어주는 작은 책방과 마을 카페를 운영합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리산권에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시민사회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지원합니다.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	지리산과 세상을 연결하고,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합니다.

● **키워드 / 조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3개 작성해 주세요.**

Ex. #환경 #IT #기술 #사회복지 #알권리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로컬(지리산) #변화지원 #공간

BrianImpactGround

■ 제2장 문제정의와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 [문제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필요성과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술 (왜 문제이고 누가 이 문제에 대해 영향을 받는지 설명)

1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한 가지 의제에 집중하는 단체가 아니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생태계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지리산이음>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권, 환경, 젠더, 경제, 복지 등 한 가지 의제에 집중하기 위해 창립한 단체가 아니다. 사람이 사는 어느 곳에서나 생길 수 있는 문제,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협동, 참여, 자치, 실험, 혁신, 공간, 연결, 관계'와 같은 가치를 접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창립했다.

지역은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또 하나의 사회다. 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부족, 정보 격차,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 세대·성·지역 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재에 대한 불만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제는 '인구절벽'이나 '지방소멸'과 같은 위협적인 용어와 함께 드러나기도 한다.

지역문제는 한두 가지 아이디어나 기술, 외부의 투자와 지원으로 단 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지역공동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있어야 한다.

<지리산이음>은 '협동, 참여, 자치, 실험, 혁신, 공간, 연결, 관계'와 같은 가치가 스며든 지역공동체를 통한 문제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설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 토대,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리산이음>은 이 생태계를 비즈니스 방식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기반한 비영리 방식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창립했다.

2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은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문제다**

몇 년 전부터 로컬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등장하고, 로컬을 기반으로 한 공공의 지원과 민간의 실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로컬이 새롭게 등장한 가능성의 공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지역과 지방이라는 단어를 로컬로 바꾸면 부정적 이미지와 선입견이 걷히고 다양성과 혁신의 이미지가 더해지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Brightmpact Impact Ground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그 중에서도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은 사람도 없고, 자원도 없고, 비전도 없어서 외부 지원 없이는 자립은커녕 생존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모든 사람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이유로 지역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거나 이해하기 보다는 대상화된 시선으로 보고 시혜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오래 전부터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꽤 많은 자원을 투입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2020년에는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와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추월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다. 2009년에 49%였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21년에 50.4%로 증가했다. 지난 4년간 수도권 인구비율 상승폭은 이전 8년간 상승폭 대비 2배를 기록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인구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20년 13.3%로 줄었는데 인구감소지역 청년들이 주로 향한 곳은 수도권이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 국토연구원, 2022)

<지리산이음>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에 있는 비영리단체다. 이곳에서 세상의 변화를 모색하는 일을 하겠다고 창립한 우리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풀 실마리를 스스로 찾아야 했다.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과 지역은 사람도, 자원도, 비전도 없어서 외부의 지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꿔내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익 활동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참여와 자치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마을에서 배움·소통·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지리산에서 새로운 실험과 대안적 삶의 가치가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갈 기반을 조성한다"는 <지리산이음>의 창립 취지는 "지역사회 스스로 문제해결력을 높여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맞닿아있다.

3 지역에 사람, 정보,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을 뿐이다. 우리 스스로를 지역 경계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이 문제다.

과연 지역에 사람과 자원이 없어서 비전도 없는 것일까?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미디어·소통 환경의 변화로 지식과 정보의 장벽은 그리 높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국이 1일 생활권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다.

Brief Impact Background

혹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사람, 정보, 자원을 '지역의 경계'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닐까? 관점을 바꾸면 지역에 필요한 사람, 정보,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지역 밖에 흩어져 있고, 지역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지역에 속해있지 않고, 지역이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연결해서 공유할 수만 있으면 최소한 사람과 정보, 자원이 없어서 없어서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故신영복 선생님은 여러 저서와 강연에서 "세상의 모든 변화는 변방에서 시작된다. 다만,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은 중심부이고 그 밖의 지역은 변두리라는 인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연결의 시대, 네트워크의 시대에는 어디든지 중심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지역 언론과 커뮤니티저널리즘은 메카가 된 충북 옥천의 '옥천신문' 발행인이었던 오한흥 대표는 내가 발붙여 살고 있는 곳이 곧 세상의 중심임을 설파했다.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에서도 벗어나야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더 확산되어야 한다.

지역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물리적 공간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만은 아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지역에 대한 인식, 지역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 지역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관점을 전환할 때 비로소 지역의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려면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즉 지역공동체의 축적된 역량이 있어야 한다. 자생력 없이는 로컬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실험과 지원도 한 순간 유행처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는 공간, 연결, 사람, 지원이라는 키워드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Brianimpact Impact Ground

● **[프레임워크]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문제해결 모델)**

프레임워크 소개 : 타겟 및 접근 방법 등

1 조직이 아닌 공간에서 시작한다.

<지리산이음>의 시작은 10년 전 2012년, '마을카페 토닥'을 오픈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과 부산에서 오랫동안 비영리단체와 공익 분야에서 일하다가 산내면에 이주한 세 명의 창업자들이 마을카페 컨셉의 공간을 만든 이유는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고, 배우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공간이 조직이 해왔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 규모를 키우기보다 다양한 세대, 지역, 직업, 역량,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간을 매개로 연결되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2012년 3월에 공간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이후 6개월 동안 마을 주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공간의 정체성과 계획을 알리고, 돈을 모으고, 계약을 하고, 마을 분들과 함께 리모델링을 해서 10월에 '마을카페 토닥'을 오픈했다. 오픈 이후부터는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면서 '마을에서의 배움, 소통, 나눔의 공간'이라는 정체성에 맞춰 마을 주민들을 위한 강연, 공연, 워크숍,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매주 영화를 상영하고, 함께 읽을 책을 모으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과 쉼터가 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지리산을 찾는 여행객들과 마을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Brianimpact Impact Ground

마을카페 토닥은 창업자 2명이 개인 돈으로 건물과 토지를 매입(6천만원)한 후 창업자의 지인들과 마을 주민들의 후원, 인터넷 펀딩으로 3천만원을 모아서 리모델링을 했다. 두달 동안의 리모델링 설계와 작업 과정에는 꽤 많은 마을 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마을카페 토닥'은 <지리산이음>이 마을에서 시작해서 지리산권 5개 지역으로 확장해가는 거점 공간 역할을 했다. 2021년에 오픈한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은 지리산권에서 전국으로 확장해가는 거점 공간 역할을 기대하고 만든 곳이다. '들썩'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공간이자 도시를 떠나 지리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워크스테이 공간, 마을 전체가 연수원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점 공간이다.

<지리산이음>이 상상한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사회적 의제가 형성되는 공간이다. 사람들을 느슨하게 연결하면서도 끈끈하게 관계 맺게 하는 공간이다. 결과적으로 <지리산이음>은 다른 비영리단체들과 다르게 조직이 아닌 공간을 기반으로 일을 시작한 셈이다.

2 연결의 힘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자본을 키운다.

<지리산이음>은 지리산 자락의 인구 2,000명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시작해 지리산권 5개 지역 곳곳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모델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자본을 키워왔다.

Brian Impact Innovation Fund

'마을카페 토닥'에서 공부모임, 문화공연, 워크숍, 강좌 등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이어주는 일을 한 후에는 지리산권 5개 지역 곳곳에서 지역의 변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연결해보고자 했다. 그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를 모르고 있을 뿐, 서로를 연결해서 알게 하고 관계 맺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만 만들어준다면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리산이음>은 2014년부터 산내면을 넘어 지리산권 5개 지역에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활동을 서로 알 수 있게 콘텐츠화한 후 온라인에 공유하고, 이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2014년 1년 동안 지리산권 커뮤니티 조사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은 이후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인터뷰 결과는 <시골생활 - 지리산에서 이렇게 살 줄 몰랐지?> 제목의 책으로 출간했다.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의 <지리산이음> 활동은 <사람, 마을, 세계를 잇다>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했다. 2020년에는 사단법인 코드가 주관하는 제1회 커먼즈어워드에서 다양성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리산이음>을 소개하는 책 제목이기도 한 '마을, 사람, 세계를 잇다'에 걸맞게 지리산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리산과 연결하는 일도 꾸준히 했다. 창립 초기부터 전국마을신문워크숍, 지리산포럼, 시골살이학교, 청년캠프, 산책클럽, 워크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지리산과 산내마을과 연결되었다.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 중에 <지리산이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거나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사람들과 <지리산이음>과의 인연은 강연, 워크숍 등을 통해 지리산권 5개 지역의 단체와 커뮤니티와의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우리는 이렇게 수년간 연결한 인적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Brainimpact ImpactGround

3 연결된 사람의 성장을 지원한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리산에서 사람, 마을, 지역, 세계를 연결하는 일을 해 온 <지리산이음>은 2018년부터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설립 · 운영하면서 그동안 지역에서 연결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센터를 본격 운영하기 전 1년 동안은 지역에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모델들을 검토했고, 5개 지역 현황을 다시 조사하고, 지역 활동가들을 인터뷰했다. 그 결과 지역에서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사람을 지원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변화를 만드는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센터 지원 방향으로 잡았다.

센터 초기 2년(2018~2019)은 지리산권 5개 지역별로 1명의 지역협력파트너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면서 그들이 지역을 바꾸고 싶은 욕구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네트워크하고, 그들을 <지리산이음>과 연결되게 함으로써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2020년과 2021년 2년간은 지역별로 3명씩, 15명의 작은변화활동가들이 지역에서 자기만의 의제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했다. 15명의 작은변화활동가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사람들을 찾아 네트워크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농업, 청소년, 교육 등을 의제로 지리산권 5개 지역의 사람들과 네트워크하는 일을 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네트워크 활동가, 프로젝트 활동가, 기록 활동가 등 15명의 지역활동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리산권 밖 지역의 활동가도 프로젝트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10년 동안 <지리산이음>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지리산권 5개 지역과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일을 해왔다. 10년 동안 연결된 사람들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할 인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지리산이음>이 가장 중점을 둔 문제해결 모델이다.

4 행정 구역으로 구분된 지역의 경계를 넘는다.

마지막으로 <지리산이음>이 접근하는 문제해결 방식은 행정 구역으로 구분된 지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생활 · 의제 · 사람 중심으로 지역을 재구성하여 일을 하는 것이다. <지리산이음>은 지리산 자락의 작은 시골마을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지역의 경계를 넘기 위해 노력한다.

BrianImpact ImpactCmound

단체나 모임 이름에 '지리산'을 쓴 곳들은 많지만 국내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지리산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대부분이다. 3개 도와 5개 시군으로 구분되어 행정구역이 전혀 다른 지리산권을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활동하는 단체는 <지리산이음>이 거의 유일하다. 더불어 우리의 활동은 지리산권 5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지리산이음>은 처음부터 지리산권 5개 지역 뿐만 아니라 지리산권 밖의 지역과 사람들도 당연히 연결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관심 지역은 일차적으로는 지리산권이지만 그 경계 안에 갇히지 않겠다는 생각,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지리산 자락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전국적인 의제를 다루는 지리산포럼을 개최할 수 있게 했고,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범위를 지리산권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확장할 수 있게 했다.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차별점(혁신점)

1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돕는 것에 집중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힘과 의지를 모아 영향력을 키워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있듯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지리산이음>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셈이다. 그래서 <지리산이음>은 "지리산권 사람들의 협동과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공익활동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시민 참여와 자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지리산에서의 새로운 실험과 대안적 삶의 가치가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창립 취지로 명시적으로 밝혔다. 또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사명을 "지리산권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작은변화를 만든다"로 하고, 센터의 비전을 "**이웃이 이웃을 돕는** 자치와 협동의 공동체 확산"으로 정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리산이음>이 선택한 방법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특히 사람과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누군가는 훌륭하고 멋진 선수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선수가 맘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장 부지를 찾고,

Brightimpact Impact Ground

자원을 끌어 모아 운동장을 건립하고, 선수들을 도와줄 코치진을 발굴하여 양성하고,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다.

2 사람의 연결과 지원을 통해 축적된 사회적 자본을 지역과 공유한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로 어려움을 토로한다. 흔히 모든 인재가 서울에 몰려있어서 지역에는 인재가 없다고 한다. 자원도 없다고 한다. 최신 정보도 부족하다고 한다.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 설령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해법 찾기를 포기하는 게 나을까? 외부의 지원이 있기만을 기다려야 할까?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역사회에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내에서는 어차피 안 되니까 지역 밖에서 물적 자본과 인적 자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까지도 빌려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과 공간을 매개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신뢰에 기반을 둔 <지리산이음>의 네트워크 힘과 영향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지난 10년간 <지리산이음>이 축적한 사회적 자본은 '토닥'과 '들썩'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이 공간을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개로, '작은변화지원센터'를 통해 연결하고 지원한 사람들을 매개로 쌓여왔다. 이제는 그렇게 축적하면서 키워온 사회적 자본을 다시 지역과 공유하면서 순환시키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

3 지역에 있는 단체는 지역의 일만 한다는 선입견을 버렸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는 그 활동범위를 서울이라는 지역에 국한하지 않는다. 서울 지역만을 대상으로만 한다면 단체명에 서울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단체는 해당 지역의 일만 하는 게 일반적이다.

우리는 각자 살고 있는 대구에서, 강릉에서, 안동에서, 부산에서, 제주에서 전국을 활동범위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리산이음>은 처음부터 지리산권 지역만을 염두해두고 일을 하지 않았다. 마을에서 시작해서 지리산권으로, 지리산권에서 다시 전국으로 확장해 가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런 이유로 <지리산이음>은 전국 곳곳의 사람들을 지리산에 초대하여 지리산 지역 의제가 아닌 전국적인 의제, 세계적인 의제를 다루는 일을 해왔다.

BrianImpactGround

세상의 중심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지역이 전국 곳곳에 존재할 때 우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압집중형 사회가 아니라 곳곳에 중심이 존재하는 탈중심의 분산형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사람과 자본, 정보와 권력만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도 지역의 경계를 넘어 전국 곳곳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4 조직의 규모를 키우기보다 네트워크의 규모와 영향력을 키웠다.

<지리산이음>은 조직의 규모를 키우기보다 네트워크의 규모와 영향력을 키우는데 집중해 왔다. 그래서 창립한 지 10년이어도 여전히 상근하는 사람은 6명이지만 지리산권 내 네트워크 규모는 처음 5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는 훨씬 규모가 크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조직이 아닌 공간을 중심으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간을 기반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는 공간, 마을, 지역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상상했고, 조직인 <지리산이음>은 그 플랫폼의 운영자, 설계자, 지원자가 되고자 했다.

플랫폼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플랫폼을 둘러싼 생태계 다양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태계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호혜적 관계를 맺고, 그 네트워크의 힘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일들을 해왔다. 이것이 <지리산이음>의 차별화된 전략이다.

Brianimpact Impact Ground

●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성공의 경험**

본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성공한 경험에 대해 기술

1 마을 곳곳이 사회적 공론장이 되는 지리산포럼을 8년째 운영하고 있다.

2012년 '마을카페 토닥'의 리모델링 비용 후원을 요청하면서 지인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다.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처럼 이 작은 지리산 농촌마을에서 농업과 식량, 에너지, 협동조합, 환경과 생태, 도시문명, 자립경제 등과 같은 새로운 대안들이 마을 곳곳의 회관과 민박집, 게스트하우스에서, 때로는 논과 밭, 들판에서 마치 축제처럼 일주일간 사회적 대화와 토론이 펼쳐지는 행사를 한번 구상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지리산포럼이 다보스포럼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다보스포럼이 알프스 산자락의 스위스 작은 도시에서 개최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모티브로 삼았을 뿐이다. 지리산포럼은 장기적으로 다보스포럼의 영향력과 버닝맨축제의 자유로움을 잘 섞어서 한국 사회의 가장 의미 있는 포럼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버닝맨(BurningMan)축제는 미국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에서 매년 8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개최되는 문화예술축제이다. 매년 수 만명 이상의 예술가, 기업인, 활동가, 기술인 등이 참여해서 일주일동안 가상의 도시를 건설해서 자치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한다. 축제가 끝나면 현장에서 만든 창작물은 모두 태우고, 모든 물건과 쓰레기는 수거해와야 한다.

10년 전, 마을카페 토닥을 오픈하면서 상상해봤던 일은 2015년에 현실이 되었다. 2015년 <지리산이음>이 있는 산내면에 100명이 모여서 2박 3일 간 '세상을 보는 색다른 생각, 지리산에 모이고 잇다'라는 주제로 시작한 지리산포럼은 2019년에는 250명이 3박 4일간 "작은 변화의 씨앗을 나누는 숲"을 주제로 모이는 행사로 발전했다.

Brianimpact background

지리산포럼은 참가자 주도성이 강한 포럼이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아니라 산과 하늘, 계곡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여러 공간에서 진행되는 포럼이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규모를 축소하고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최했고, 코로나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2022년에는 '10년후 OO'을 주제로 주제섹션, 기획센션, 상상섹션, 대화섹션, 배움섹션, 놀이섹션, 교류섹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3년에는 오랜시간 누적되어 온 문제들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해 새로운 상상과 제안, 신뢰의 대화와 교류, 호혜적 관계와 연대의 힘을 느끼면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다시 시작할 것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3박 4일간 진행하였다.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도시에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전 세계적인 의제를 다루는 다보스 포럼처럼 지리산포럼은 지리산 자락의 한 작은 시골마을에서 세상의 중요한 의제를 논하는 공론의 장이다. 지리산포럼을 처음 시작할 때, 누가 자기 돈을 내고 교통과 숙박시설도 불편한 지리산까지 와서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는 포럼에 참여하느냐는 걱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포럼, 누구나 한 번은 와보고 싶어 하는 포럼, 한 번 온 사람은 또 오고 싶어 하는 포럼이 되었다.

2 공익 분야에서 지원의 전환 모델을 만들었다.

<지리산이음>은 사람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일을 해왔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했다면, 2018년부터는 사람을 연결하는 일에 더해 지원하는 일을 함께 했다. <지리산이음>이 아름다운재단과 협력해서 만든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까지만 해도 보편적으로 쓰이던 '중간지원조직' 대신 '변화지원조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지리산이음>은 5년간의 활동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책임지면서 지역에 필요한 일은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사람을 지원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우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그래서 단기간 보여주기식 활동으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역량을 소진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다. 긴 호흡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의 역량을 축적해가는 방식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온 원칙이 '사업이 아닌 사람을 지원한다'였다. 센터는 지역에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활동지원 공모사업에서는 '예산서 없는 기획안'을 처음 시도했다.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활동과 사업의 본질에 우선 집중하자는 취지였다.

Brief Impact Background

지금은 카카오펠로우십 모델도 있고, 여러 민간 재단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많이 넓어졌다. 그러나 2017년 센터 설립과 운영을 계획할 당시에는 특히 지역에서 조건 없이 사람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낯선 일이었다. 또 그 성과에 대해 여러 걱정과 의문을 품게 하는 일이기도 했다. 우리는 5년~10년에 걸쳐서 사람을 지원하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가 쌓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조건 없는 활동비 지원을 6년간 해왔다.

그 결과 2018년에 5명으로 시작한 지리산권 작은변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는 현재 100명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6년 전에는 지역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활동들이 지역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사람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지원을 통해 2021년까지 4년 동안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192개 활동을 지원했다.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우리의 원칙은 "서류와 결과로 심사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와준다"이다.

3 공간을 자산화함으로써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1.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건물 181㎡+토지 426㎡) : (구)농협창고를 2017년 지리산이음이 매입하여 2021년에 증축하고 리모델링했다.
2. 마을카페 토닥(건물76㎡+토지 137㎡) :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창업자 두 사람의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지리산이음이 공익법인화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와 건물을 기부하고, 소유권을 이전(2017년 11월)했다.

<지리산이음>은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공간을 공익자산화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2012년 '마을카페 토닥'을 리모델링하면서 당시 개인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을 <지리산이음>이 공익법인이 되면 기부할 것이라는 약속을 2017년에 이행했다.

Brian Impact Ground

또 2017년에는 현재의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 자리에 있었던 (구)농협 창고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에는 이곳에 '지리산과 세상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세우겠다는 구상만 있었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다. 결국 3년을 기다리다가 2020년 아름다운재단에 제안해서 공간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고, 2021년에 완공할 수 있었다.

<지리산이음>은 창립 당시부터 '자산의 공익화와 공간의 재창조'를 중요한 사업 분야로 정하고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의 창의적인 실험과 작업, 휴식과 충전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과 게스트하우스, 공동주택과 공동사무실을 활성화하고 이런 공간을 공익화하는 일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지리산이음>은 현재 토닥과 들썩 2개의 공간을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지리산이음>이 소유한 이 공간은 지리산의 안과 밖의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처음부터 공간을 자산화했기 때문에 단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그 공간에서 무엇이라도 상상해볼 수 있는 실험을 가능하게 했다.

4 지리산권 안과 밖을 연결하면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장 큰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역에 있는 단체에게는 행정이 구분해놓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도 <지리산이음>이 진행하는 다양한 일들을 마을에 있는 사람, 지리산권 5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리산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지리산이음>과 연결된 사람들이 1,000명은 넘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지리산이음>의 가장 큰 자산이자 성과이다. 지리산 자락 작은 마을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서울에 있는 어떤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넓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이 구분해놓은 지역의 경계를 지우고 처음부터 전국을 무대로 삼아 일을 했기 때문이다.

지리산시골살이학교나 지리산청년공존캠프, 지리산청년도서관, 전국마을신문워크숍, 손과 손이만나는 캠프, 지리산산책클럽, 지리산쌀롱을 포함하여 지난 10년 간 <지리산이음>이 진행한 수많은 프로그램은 모두 지리산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고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일이었다. 이제는 그렇게 축적한 사회적 자본을 다시 마을로, 지리산권 지역으로 순환시키고,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지리산이음>은 다음 10년 동안 이 일을 할 것이다.

Brian Impact Ground

■ 제3장 미래비전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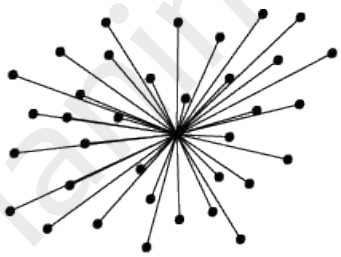
#. 지리산이음 : 지난 10년과 다음 10년

임팩트 그라운드의 3년 후원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요소를 설명하기 전에 <지리산이음>이 앞으로 10년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지리산이음>의 시작은 2012년 오픈한 '마을카페 토닥'이라는 공간이었다. 마을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산내(山內)라고 불리는 지리산 자락의 작은 시골 마을에 소통·배움·나눔의 커뮤니티 공간을 열면서 시작된 일이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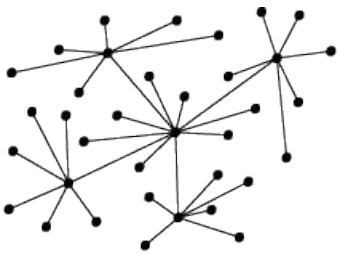
<지리산이음> 구성원들은 올해 상반기 회고를 하면서 내년 2023년 한 해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다음 10년을 계획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일하는 사람도 안식월이나 안식년이 필요하듯 조직도, 공간도 잠시 멈춰서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3년은 <지리산이음>에게 회고하고 평가하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2024년부터 다음 10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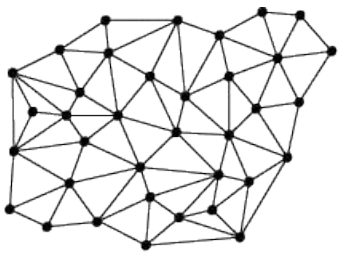
10년 간 <지리산이음>은 면 단위 마을에서 5개 시·군의 지리산권으로, 지리산권의 경계를 넘어 전국으로 계속 네트워크를 확장해갔다. 그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되고 관계맺고 협력해 온 사람들의 수도 계속 증가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10년도 계속 네트워크를 확장해야만 할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10년 간 연결의 힘으로 차곡차곡 축적해온 로컬(지리산) 기반의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또 다른 실험과 모험을 해보려고 한다.



지난 10년

마을 > 지리산권 > 전국 네트워크 확장기





다음 10년

지역·분야별 노드 발굴과 노드 기반 네트워크 확장, 분산형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전략

Brightimpact Inc. Background

우선 위 그림처럼 <지리산이음>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던 네트워크의 점과 선 위에 지역별·분야별 노드(Node)를 만들고, 각 노드(Node)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면서 서로를 연결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지리산 이음>이 생각하는 노드(Node)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지역(Local) 노드	지리산권 5개 지역(남원, 함양, 산청, 하동, 구례)에 있는 노드를 중심으로 지역별 작은변화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운영·지원모델을 인접한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한다.)
의제(Agenda) 노드	지역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의제별 노드를 발굴하고, 노드별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한다. (의제분야 예시 : 기후위기, 교육, 농업, 인구, 정치, 디지털경제, 불평등, 식량, 행복 등)
커뮤니티(Community) 노드	지역(Local)과 의제(Agenda) 노드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연결되는 점과 선들이 만나 커뮤니티를 이루게 하고, 그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지리산권 여러 지역과 공간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커뮤니티 프로그램 예 : 시골살이학교, 산책클럽, 갭이어프로그램, 연수 및 여행프로그램, 작은변화아카데미, 지리산대학, 지리산 사람책도서관, 책방스테이, 농사학교, 지리산굿즈 제작과 판매, 디지털 콘텐츠 제작, 멤버십 프로그램 등)

우선 지난 10년 동안 <지리산이음>과 연결된 사람들과 지역별, 의제별 노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노드를 중심으로 연결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서로 연결되게 하려 한다. 물론 지역별, 의제별 노드와 네트워크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의 경험과 역량,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지역별, 의제별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한 연결을 넘어 관계 기반의 커뮤니티 멤버십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그 멤버십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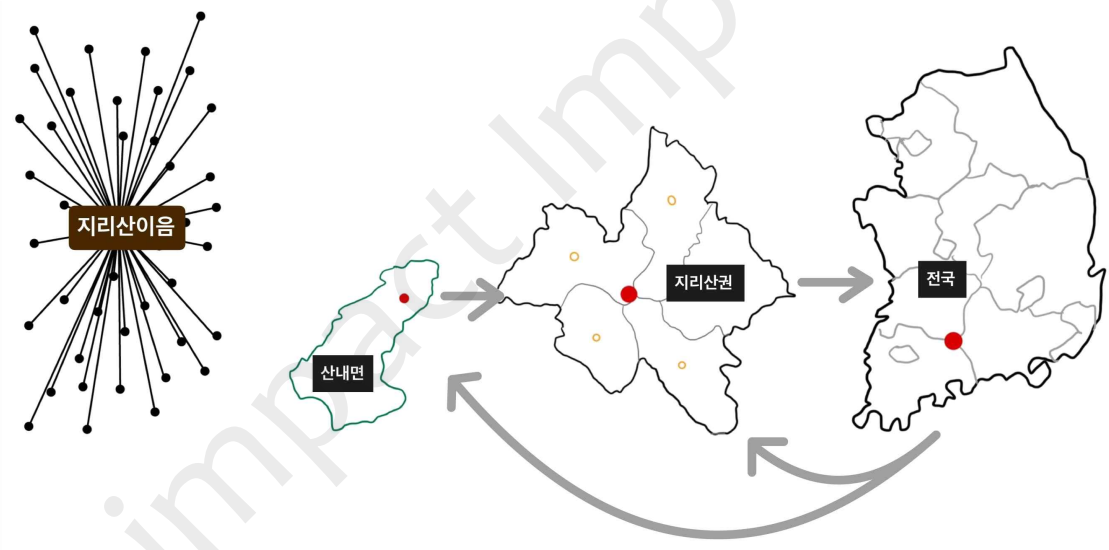
Brianimpact Background

#. 해결하고 싶은 문제 요소

<지리산이음>의 다음 10년 방향성을 바탕으로 만약 임팩트 그라운드의 후원을 받는다면 해결하고 싶은 문제 요소 혹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야 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다.

1 10년 동안 마을 – 지리산권 – 전국으로 계속 확장해가던 네트워크를 다시 지역사회로 순환하는 네트워크로 만들기 위한 조사와 인터뷰

앞서 이야기한대로 10년 동안 마을 > 지리산권 > 전국으로 확장한 네트워크가 <지리산이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우리가 지역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일에 중점을 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된 네트워크의 힘과 영향력을 다시 지리산권 지역과 마을로 순환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난 10년간 네트워크한 사람들의 역량, 경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계속 파악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지리산권 5개 지역과 좀 더 호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수립하려고 한다. 그래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는 지역조사와 인터뷰부터 시작한다.

<지리산이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조사와 커뮤니티와 사람에 대한 인터뷰를 먼저 시작했다. <지리산이음>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2014년 1년 동안은 지

Brianimpact Impact Ground

리산권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은 지역을 위한 실험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디지털콘텐츠와 책으로 공유하고 출판했다. 당시 1년 간의 조사와 인터뷰는 이후 지리산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되었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 후 2017년에도 '지리산권 지역 현황 조사'와 '주민 욕구 파악과 지역에 필요한 지원 방법을 찾기 위한 인터뷰'를 외부 연구진들과 함께 진행했다. 이 조사를 통해 <지리산이음>은 '사업 보다 사람 지원이 우선이다'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지원 방향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욕구에 기반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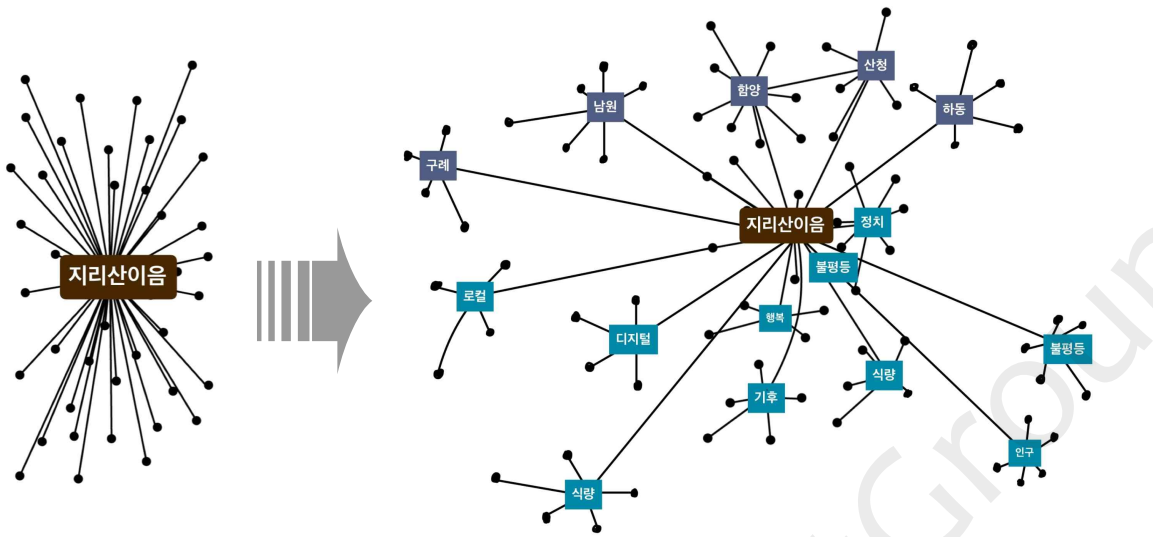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리산이음>은 지난 10년 동안 연결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역량, 경험,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 10년 전과는 달라진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역 구성원들의 욕구는 무엇인지, 지역에 부족한 자원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조사도 필요하다. 그래야 다음 10년을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준비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역기반노드 : 지리산권 5개 지역의 작은변화네트워크 자립 준비

<지리산이음>이 2018년부터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아름다운재단>이 재정을, <지리산이음>이 센터 운영과 사업기획·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는 5명으로 시작한 네트워크를 5년 만에 100명의 네트워크로 만들었다. 이제는 지역협력파트너, 작은변화활동가, 프로젝트활동가, 기록활동가를 포함하여 지리산권 5개 지역에서 협력해 온 1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지역별 작은변화 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센터의 비전은 "이웃이 이웃을 돕는 자치와 협동의 공동체"이다. 이제 5개 지역에서 10년 동안 <지리산이음>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서 작은변화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와주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이 일이 앞서 이야기한 지역별 노드 만들기와 네트워크 구축이다.

Brian Impact Background



위 그림은 지리산이음을 중심으로 확장한 네트워크를 2024년부터 1단계로 추진할 지역별·의제별 노드 만들기와 노드별 네트워크 구축을 표현한 것이다.

지역별 노드와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들이 서로 돕는(이웃이 이웃을 돕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별 작은변화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립 준비를 해야 한다. <지리산이음>은 2022년부터 지역 협력파트너들과 함께 이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역별 작은변화활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사람, 네트워크, 자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활동으로 사람과 네트워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만 자본은 부족하다. <지리산이음>은 지역별 작은변화 활동을 지원하는 '지리산 작은변화기금'을 만들고, 기금 모금 및 운영 역량을 키워나가려고 한다.

3 의제기반노드 : 의제별 노드와 네트워크가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을 포함한 지리산권 공간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지리산이음>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지리산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공론장을 매년 개최해왔다. 우리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포럼을 중소규모의 연중 개최되는 다양한 포럼으로 분산시켜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론장을 지리산 곳곳에 만드는 작업을 해내가려고 한다.

의제별 노드는 다양한 의제 포럼을 책임지는 사람이나 그룹을 의미한다. <지리산이음>은 지리산권 5개 지역의 사람을 발굴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왔던 경험을 살려 의제별 노드를 책임질 사람과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해나가려고 한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

BrianImpact ImpactGround

인구문제, 농업과 식량, 불평등, 교육, 정치,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다가올 미래에 꼭 해결해야 할 의제를 선정하고, 이 의제를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고, 포럼을 통해 일상적인 공론장을 개최함으로써 문제해결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물론 이미 지리산권 5개 지역에는 청소년, 마을교육, 도서관, 기후위기 등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 네트워크가 운영 중인데, 이 의제별 노드를 책임질 사람들은 서울, 부산, 제주, 강릉, 홍성, 대구, 함양, 광주 등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없다. 의제별 노드와 네트워크 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곳은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을 포함하여 지리산 5개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숙소, 공유오피스, 커뮤니티카페, 교육시설 등)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는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을 좀 더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으로, 변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의제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의제별 노드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위한 원격근무 공유공간과 숙소를 준비하는 일도 필요하다.

다양한 의제별 노드를 책임질 사람들을 지원하고, 포럼과 같은 공론장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일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리산권 여러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들을 서로 네트워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지리산권 여러 지역에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숙박 공간과 이들이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공간을 지역별로 발굴하고 네트워크하면 의제별 노드가 더 확장되면서 지역과 만나는 접점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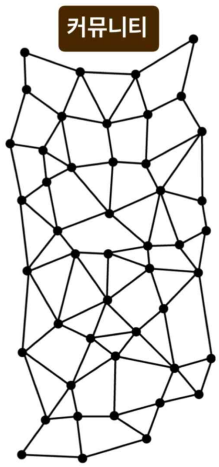
4 커뮤니티 기반 노드 : 지역의 자연환경, 사람, 공간,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노드 만들기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분야, 경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지리산 곳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환경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 좀 더 대안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미래 비전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지리산을 벗삼아 문화·예술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지리산에 정착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책방, 도서관, 작업장 등도 곳곳에 존재한다. 이것은 지리산만의 매력적인 자산이자 콘텐츠이다.

Brian Impact Background

커뮤니티 기반 노드 의미

지역(Local)과 의제(Agenda) 노드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연결되는 점과 선들이 만나 커뮤니티를 이루게 하고,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지리산권 여러 지역과 공간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한다.



커뮤니티 프로그램 예

시골살이학교, 산책클럽,
갭이어프로그램,
연수/여행프로그램,
작은변화아카데미, 지리산대학,
지리산사람책도서관, 책방스테이,
농사학교, 지리산굿즈 제작/판매,
로컬콘텐츠 제작,
멤버십 프로그램 등

이미 충분한 자연환경 콘텐츠에 더해 사람, 커뮤니티, 공간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콘텐츠화해서 아카이브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노드별 책임자와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도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지리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플랫폼 삼아서 여행프로그램, 학교프로그램, 연수프로그램, 사람책도서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작은 책방과 도서관들 간의 제휴, 식당과 게스트하우스의 제휴를 통한 지역 간 공간 네트워크도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

후원이 된다면 우리가 10년간 구축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속 사람들이 지역과 더욱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지리산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 할 것이다.

5 인구를 재정의하는 모델, 관계인구에 기반해 로컬멤버십 운영을 위한 IT 및 서비스 기반

더 이상 지역의 인구는 늘지 않는다. 지역의 인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인구도 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지역의 인구, 주민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역에 정착하는 정주인구만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지역의 인구 또한 연결성에 기반을 둔 관계인구 개념으로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민간 차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계인구는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중간 개념으로서,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 않았으나 정기·비

BrightImpact ImPactGround

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관계인구는 일본의 민간에서 나온 개념을 일본 정부가 인구의 수도집중과 지방소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쓰는 용어가 되었다. 연결인구라고도 하는데 국내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인구 정책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생활인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국내에서도 관계인구 개념이 정책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도 정주인구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계인구에 대한 토론을 하고, 관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지역과 관계 맺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리산이음>이 '사람을 연결한다'는 전략으로 10년의 성과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민간 차원에서 관계인구와 이 관계인구를 기반으로 한 로컬 멤버십 모델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싶다. 이를 통해 단지 하드웨어 개발을 통해서만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연결되는 힘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IT와 서비스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멤버십 관리, 멤버들 간의 정보 공유와 커뮤니티, 디지털 콘텐츠와 아날로그 상품 및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위해서는 IT역량을 갖춘 사람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자산을 디지털 콘텐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지리산이음>은 이 사람들이 지리산권 여러 지역과 산내면의 관계인구로서 함께 생활하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BrianimpactGround

● **지원사업의 성과 정의**

임팩트 그라운드의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떠한 변화를 '성공'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❶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연결되고 축적되는 온/오프라인 공간이 된다.

□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홈페이지에 지리산권 안밖에서 지역 현장과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아카이브된다.

□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과 지리산권 5개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서 진행되는 의제별 포럼, 산내면과 지리산권 지역에서 진행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무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인물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역할도 한다.

□ 장기적으로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홈페이지에는 우리가 생산한 인터뷰 콘테츠 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과도 제휴해서 콘텐츠를 모으고 공유하고, 이곳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개인, 모임, 단체, 기관들이 모두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이 되도록 한다.

□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야기가 연결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해 만든 오프라인 공간인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과 통합 운영된다.

□ <지리산이음>은 정기적으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들썩'으로 초대하여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❷ 일주일 간 500명의 사람들이 오고가는 지리산포럼, 10개의 의제별 포럼이 운영된다.

□ 지리산포럼 10년을 맞이하는 2024년 이후부터 지리산포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외형적으로 500명의 사람들이 일주일 간 오고가는 포럼이 되게 한다.

□ 10개 이상의 의제별 포럼이 최소 1년에 한 차례 이상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이나 지리산권 5개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개최되도록 한다.

□ <지리산이음>이 5년 동안 지리산권에서 5명으로 시작해서 100명의 네트워크로 확장했듯이 의제별 포럼을 통해서 3년 후에는 100명의 의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도록 한다.

Brian Impact Inc. Background

□ 지리산권 5개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을 의제별 포럼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매개로 네트워크하고, 10개의 의제별 포럼의 성과가 지리산포럼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❸ 지리산권 5개 지역의 작은변화네트워크가 센터의 지원 없이도 자립하게 되고, 지리산권 외 지역으로 작은변화활동가 지원 모델이 확장된다.

□ <지리산이음>이 운영하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통해 연결되고 지원받은 100명의 사람들이 지리산권 5개 지역별로 작은변화네트워크·포럼·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다.

□ 각 지역이 작은변화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과 네트워크를 스스로 만들어냄으로써 운영 자립을 이룬다. 이를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자치와 협동의 공동체'라는 센터의 비전을 달성한다.

□ 5개 지역의 작은변화 네트워크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네트워크'가 되도록 하고,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작은변화지원센터'로 그 활동 반경을 전국으로 넓히다. 그리고 이 센터를 통해 지리산권 외 지역으로 작은변화활동가 지원 모델을 확대한다.

□ 이 모델을 통해 지리산권 외 지역에서도 네트워크 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지역문제 해결력이 높아지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에서의 사람 지원모델을 개념화, 표준화, 매뉴얼화하여 <지리산이음>이 만든 모델이 전국의 지역사회 곳곳으로 전파되게 한다.

❹ 로컬 멤버십과 10개 이상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모범적인 관계인구 모델을 만들어낸다.

□ 커뮤니티 기반 노드 책임자를 발굴 · 지원함으로써 지리산권 지역의 자연, 사람, 공간,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10개 이상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한다. 이미 <지리산이음>이 진행해왔던 지리산시골살이학교, 지리산쌀롱, 지리산산책클럽, 지리산사람책도서관 등을 포함하여 지리산 안과 밖을 연결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로컬멤버십 제도와 연계해서 운영한다.

□ 로컬멤버십의 가입, 멤버십 서비스 운영, 커뮤니티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멤버십을 기반으로 한 관계인구의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낸다.

Brianimpact Impact Ground

●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에 대한 계획**

Scale-Up 이란? 조직의 규모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Scale-Out 이란? 조직을 분화/모델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평적 방법

스케일 업 Scale-Up

❶ 조직의 규모보다는 <지리산이음>이라는 조직과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이라는 공간과 연결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의 규모와 역량을 계속 키워간다. 이 네트워크가 마을 — 지리산권 — 전국을 순환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부 · 배분, 공간,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한다.

❷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의 미디어 소통 환경 개선을 통해 일상적인 포럼 운영이 가능하고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이고 연결되고 협력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지리산권 5개 지역 커뮤니티 공간들 사이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간 네트워크의 역량을 강화한다.

❸ 온라인 모금과 배분, 로컬 멤버십 운영,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런칭 등을 위해 조직 내의 IT역량을 강화하고, IT에 전문성이 있는 협동조합이나 소셜벤쳐와의 전략적 협력 및 위성 및 원격사무실을 산내면에 유치한다.

스케일 아웃 Scale-Out

❶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작은변화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지리산권 5개 지역별 작은변화지원네트워크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부 · 배분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기반을 조성한다. 그리고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운영 모델을 1단계로는 지리산권과 가까운 지역으로, 그 이후에는 전국 지역으로 전파한다.

❷ 현재의 지리산포럼은 연례 총회 방식으로 전환하여 참가 규모를 키우고, 개최 기간은 늘리고, 내용은 더 다양화하면서 깊이 있게 한다. 이와 함께 10개 이상의 중소규모 의제별 포럼이 지리산권 지역의 여러 공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의제별 책임자와 인적 네트워크, 공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024년부터 지리산포럼의 기획과 운영을 위한 독자적인 사무국을 꾸리고, 지리산포럼의 공동주최 및 후원협력파트너를 확대함으로써 지리산포럼을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포럼으로 발전시킨다.

❸ 현재 <마을카페책방 토닥>은 로컬멤버십의 안내소 및 지리산포럼의 사무국, 여러 연구소 및 사회적 기관들의 위성 사무실 역할로 전환한다.

Brief Impact Background

● **디지털 기술의 활용**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의 과정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기술

❶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디지털 콘텐츠화 및 아카이브 사이트 구축・운영
- 글, 사진, 영상의 디지털 콘텐츠화 및 모바일 최적화
- 지역, 주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분류 및 검색 기능
- 콘텐츠의 공유 및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제휴 및 협력과 SNS 활용

❷ 커뮤니티 기반의 로컬 멤버십 플랫폼
- 멤버십 가입과 회원관리, 프로그램 및 콘텐츠 관리를 포함한 대쉬보드 기능
- 멤버십을 위한 정기 및 일시 결제 기능
- 로컬 기반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개설, 관리, 참가자 관리, 홍보 기능
- 로컬 콘텐츠(사람, 공간, 자연환경, 커뮤니티)와 지도API 서비스와의 결합

❸ 지역 네트워크의 기부와 배분 플랫폼
- 기부자를 위한 결제와 기부
- 모금 페이지의 개설과 운영, 기부자 관리
- 공모를 위한 프로젝트 접수 및 관리
- 배분을 위한 기부자 및 지역 주민들의 투표 및 평가시스템

❹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의 미디어 소통 환경 및 지역간 커뮤니티 공간 네트워크
- 1인 온라인 회의를 위한 멀티미디어 환경
- 프로그램 생중계 송출 및 다중화면 편집을 위한 장비와 기술
- 지역 커뮤니티 공간 사이의 현장 프로그램 연결과 쌍방향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BrianImpactGround